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 생활의 질에의 접근을 위한 시도 —

김인숙 · 최은숙*

서원대학교 가정교육과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A Study on the Level of Living and Life Satisfaction of Rural Households In Korea
— Approach to the Quality of Life —

Kim, In Sook · Choi, Eun Sook*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eowon University

*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흔히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을 가리켜 ‘잘산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잘사는지의 여부는 물질적인 측면에 의해 판단된다는 견해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서 1991년에는 국민 1인당 GNP가 6,489\$, 총수출액이 718.7억\$을 넘는 등 국민생활에 있어서는 물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면에서 이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도처에서는 심한 불균형의 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특히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룩한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물질적으로 또는 심리적인 면에서 많은 불평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농촌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추세로 인하여 우리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수집단화 되고 있다는 시각은 관심의 비중도 함께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어 이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농가의 생활을 진단해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대상에 맞는 농촌복지 정책 수립이나 농촌생활개선 사업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그리하여 본 연구는 농가의 ‘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진단해 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으로써 먼저 생활의 질을 생활수준과 이에 대한 생활만족수준의 두 하위개념으로 구분하고, 다시 생활수준은 가정내적 조건과 가정외적 조건인 지역사회 생활환경으로 나누었다. 그에 따라 다차원적이고 포괄적 개념을 지닌 복합용어로서의 생활의 질을 가정/지역사회 생활수준, 그리고 이들 각각의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수준으로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그 관계를 밝힌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때 지역사회 생활수준은 주어진 상황조건으로 보고, 가정생활 관련변수와와의 관계는 분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농가에서의 가정/지역사회의 생활수준 및 이에 따른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농가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

수(주부연령, 주부학력, 가족수, 자녀수, 실물자산, 화폐자산, 농가소득, 거주지)와 가정관리 능력변수는 가정생활수준/만족수준 및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또한 가정관리 능력변수는 매개변수가 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의 질과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의 개념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목표 및 국가와 지역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활의 질 향상' 또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는 '복지농촌 건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건강하고 번영된 상태, 행복한 생활상태 등의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보여진다.

복지(Well-being 또는 Welfare)에 대해서 김신복(1980)은 "행복감, 안녕감, 형평감 등이 혼합된 '잘산다'는 의식이 복지이다"라고 하여 복지개념과 '잘산다'는 용어를 연결짓고 있고, 홍동식(1983)은 복지의 개념을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그 하나는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기회(life chance)라고 하여 '생활의 질'을 복지의 하위개념 또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렇게 볼 때 '잘산다'는 것을 대리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생활의 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의 질'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각기 다른 표현으로 내려지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조희금, 1986; 고순철, 1992).

첫번째로는 '생활의 질'을 인간의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자원, 즉 객관적 생활환경 또는 생활조건이 '생활의 질'을 구성한다고 하는 객관적 학파의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조건은 생활의 표준 또는 생활수준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질의 개념을 측정가

능하도록 분류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게 된다. 두번째로는 '생활의 질'이란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이므로 주관적 가치를 내포하는 행복이나 만족과 같은 개념을 복지라는 총체적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주관적 학파의 입장을 들 수 있으며,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감이란 용어로 표현되어진다. 세번째의 경우는 생활의 현상을 객관적, 행위적, 양적 측면과 주관적, 주지적, 인지적,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생활의 질'이란 물리적, 경제적, 신체적인 면과 함께 경제외적, 심리적인 면으로도 평안하고 풍요로우며 건강한 생활로써 '생활의 질'의 향상은 외적조건과 내적만족의 향상을 뜻한다고 보는, 다시 말하면 객관적 학파와 주관적 학파의 입장을 통합하는 견해이다.

이상과 같은 객관적/주관적 접근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Gerson(1976)은 '생활의 질'을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적 접근법(the Individual Approach)과 개인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일을 하므로써 만족을 얻게 된다고 보는 초월적 접근법(the Transcendental Approach)의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사회와 개인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우선한다는 논리로는 '생활의 질'의 개념에 대해서 어떠한 단언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므로 '생활의 질'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면에서 본 지역사회 '생활의 질'과 지역사회 면에서 본 개인적 '생활의 질'을 동시에 정의하는 제3의 방법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상호작용적 관점'(Interactionist Perspective)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Gerson은 개인과 지역사회적 측면에서 '생활의 질'을 논함으로써 '생활의 질'의 대상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정학자인 Rice & Tucker(1986)는 생태학적 접근법(Ecosystems Approach)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학의 주관심 분야인 '생활'에 대한 관점을 살펴 보아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여러가지 관점에서 '생활'을 설명하고 있다. 이중 특히 '생활'을 기능면에서 정의한 三東純子 등(1983)은 인간의 생활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면에서 개인생활과 다른 가족원과 공유하는 가정생활, 그리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사회생

활로 분류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별로는 가정 생활과 가정외의 생활로 나누었다. 즉 가족생활과 개인생활의 대부분은 가정생활로서 영위되고, 사회 생활의 대부분은 가정외의 생활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별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가정 생활을 위한 행위가 가정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활을 살피기 위해서는 가정생활과 가정을 둘러싼 환경으로서의 가정외의 생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각이 바로 생태학적인 관점인 것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은 생활의 최종목표를 '생활의 질'로 간주하고, 이를 생활관리체계(Life Management Systems)의 산출이면서 개인이나 가족이 자신의 생활수준으로 부터 얻는 만족감을 측정하는 표준으로 보며, 질과 양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의 질'은 실재(reality)에 대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인지, 생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또한 사용된 관리의 질과 관리체계의 각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Rice 등의 견해에서는 가족과 환경, 객관적 실재와 주관적 만족의 측면이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생활의 질'은 그것을 언급하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할 만큼 다양한 개념임에 틀림없는데, 지금까지의 고찰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생활의 질'을 정의하는 데에는 개인 또는 가족 및 이들을 둘러싼 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와 여기서의 물리적·객관적 조건 및 심리적·주관적 만족이라는 적어도 4가지 측면이 반영되어야 하고, 측정 역시 이들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법으로 시도되어야 하는 것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중 어느 한가지 측면만을 다루는 단차원적 접근만으로는 '생활의 질'에 대한 설명이 불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접근법에 따라 가정(가족체계)과 지역사회(환경)를 농가가족의 생활의 장으로 구분하고, 다시 '생활의 질'을 정의하는 객관적/주관적 학파의 혼합적 입장을 적용하여 농가의 생활(환경)조건과 이에 따른 심리적 만족

감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이렇게 측정한 결과를 가정/지역사회 생활수준 및 가정/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으로 함으로써 이상 4가지 수준을 '생활의 질'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2.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려는 노력은 '생활의 질'의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려는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사회지표적 성격을 띤 '생활의 질' 관련연구에서는 대체로 주어진 환경조건으로서의 '생활의 질'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제상황 내지는 수준정도에 주로 관심을 보여왔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유사개념의 여러연구, 즉 생활만족도나 결혼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다루는 연구에서 보다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는 경향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심리적 만족감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검증하고 있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 가족수/자녀수와 같은 인구·경제학적 변수에 대하여 고찰하고, 본 연구에서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거주지 변수와 역시 처음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정관리 능력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연구자별로 '생활의 질'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 만족도 또는 '생활의 질'에 대한 인지라는 용어로도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연구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용어에 준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고찰을 하였다.

가. 연령

Andrew & Withey(1976)는 10대들의 '생활의 질' 인지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고, 홍숙자(1990)는 한국노인은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Campbell(1976)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만족스러웠던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생활만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김경동 등(1983)은 연령은 '생활의 질' 인식에 유의한 변수가 아니라고 하였고, 이기영(1984)도 주부의 연령은 '생활의 질' 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연령변수가 심리적 만족

감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부연령을 변수로 채택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나. 학력

최은숙(1981; 1992), 이기영(1984), 그리고 Andrew & Withey(1976) 등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주부의 학력수준은 '생활의 질' 또는 그것의 인지와 유의한 관계에 있다고 하였고, 정은숙(1985)은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의 질' 수준이 높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경동 등(1983)은 학력이 높을수록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한경혜(1980)는 가정의 학력수준은 '생활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Molnar(1985)는 농업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은 경영자의 경영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요소이므로 주관적 복지와의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으며, 노자경(1990)은 가정의 학력수준에 따라 경제적 복지수준의 차이가 난다고 하였고, 김숙이 등(1988)은 주부의 교육수준은 경제생활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홍숙자(1990)는 미국 이민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력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으며, 김명자(1982)는 가정의 학력수준은 생활만족감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고, Campbell(1976)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현실생활에 대한 불만이 더욱 크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경구(1979)는 교육과 주관적 복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본 여러 연구에서도 학력수준은 대체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나(김화자 등, 1991; 박찬미 등, 1987; 서병숙 등, 1983; 옥선화, 1987; 최재석, 1982), 유영주(1979)는 결혼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가족원의 학력수준 변수 역시 여러 연구에서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학력수준을 변수로 채택하여 검증해 보기로 한다.

다. 소득

Bubolz 등(1980)은 소득이 높으면 더 나은 '생활의 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고 (김숙이 등, 1988) 김경동(1983)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연숙 등(1991)은 맞벌이 가정의 생활만족도는 가

구소득이 많을수록 높다고 하면서, 생활비와 저축액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화자 등(1991)도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은숙 등(1992)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또한 소득관련 변수로 연간 생활비가 많을수록, 경지규모가 클수록 총체적인 '생활의 질'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Ackerman & Paolucci(1983)는 소득적정도가 전반적인 '생활의 질' 인지에 따른 만족과 관계된다고 하였다. 반면 송병국(1987)은 농촌성인의 경우 생활만족도와 소득수준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노자경(1990)은 총소득은 주관적 복지수준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소득빈도와 일인당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객관적 복지수준과 주관적 복지수준 모두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관련)변수에 대해서는 '생활의 질' 또는 생활만족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는 연구가 있는 반면, 이들을 구성요인으로 포함시킨 연구가 있다.

이상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소득(관련)변수는 심리적 만족감에 대체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실물/화폐자산을 변수로 채택하여 한국농가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자산변수는 순자산을 변수로 다룬 노자경(1990)의 연구결과와 Carlin & Reinsel(1973)의 농가는 재산은 많지만 낮은 화폐소득으로 인하여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변수로 채택하였다.

라. 자녀수 · 가족수

자녀수 변수에 대해서는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자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적다고 하였는데(박민숙, 1985; 유은희, 1974; 유영주, 1979; 이육진, 1982), 홍신혜(1987)는 이 둘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가족수 변수에 대해서는 임정빈 등(1988)은 가족수가 많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역시 임정빈(1990)은 한국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유일하게 가족수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자경(1990)은 가족수는 경제적 복지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녀수는 많을수록 심리적 만족감

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가족수는 많을수록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은 두 변수의 영향력은 거의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을 모두 변수로 채택하여 한국농가의 경우에서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마. 거주지

거주지 변수는 다른 연구들에서는 거의 채택되고 있지 않은 변수인데, 농가는 위치한 농촌지역의 환경적 여건에 따라 '생활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본 연구에서의 예비분석 결과에서도 거주지 변수는 4가지 차원의 척도로 측정된 '생활의 질'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변수로 채택하였는데, 명목변수이므로 가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바. 가정관리 능력변수

가정관리 능력은 가족이 보다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능력이며, 이것만으로도 중요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능력이기도 하다. 또한 종래에는 인간의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의·식·주의 관리가 중심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생활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가족의 필요나 요구도 다양화되어서 종래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酒井 ノブ子, 1990)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은 그 가정에 속한 가족원의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극히 복잡한 현대가정에서 가족의 욕구는 무한정 높아가는 반면 사용가능한 자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 및 개인의 욕구충족과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바로 가정관리자로서의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Baker(1979)는 관리를 가족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힘이자 생명력이라고 하면서 '생활의 질'을 형성하는데 있어 관리의 역할을 강조하였고(김정옥, 1989), 대부분의 가정관리학자들은 가정관리행동의 최종목표는 바로 '생활의 질' 향상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같은 점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주부의 가정관리능력 수준이 '생활의 질'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변수로 채택하고자 한다.

III. 연구모형 및 척도

1. 연구모형

본 연구수행을 위한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생활의 질'이란 대상이 되는 개인/가족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정 및 사회의 제조건과 이것으로 부터 얻는 만족감으로 표현된 복지상태로 여기서 생활조건 개선은 궁극적으로는 생활만족수준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생활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연적으로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생활(환경)조건이 함께 측정되어야 하고, 이들 각각은 총체적인 개념으로서의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활의 질'을 '대상이 되는 농가의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관계되는 가정내의 생활수준과 가정 외의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수준 및 이들로 부터 느끼고 있는 생활만족수준으로 표현된 복합적인 복지상태'라고 정의함으로써 가정내외적 생활의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가정생활수준/만족수준과 지역사회 생활수준/만족수준 등 4가지 용어를 총체적 의미의 '생활의 질'의 하위 개념으로써 사용하였다. 다만 총체적인 '생활의 질'에의 접근방법에 대한 합의된 결과가 아직 도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각각의 수준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총체적인 '생활의 질'을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한 것이 다음의 그림 1인데, 이때 농가에 주어질 환경조건인 지역사회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농가특성변수 중 사회적 변수인 거주지 변수가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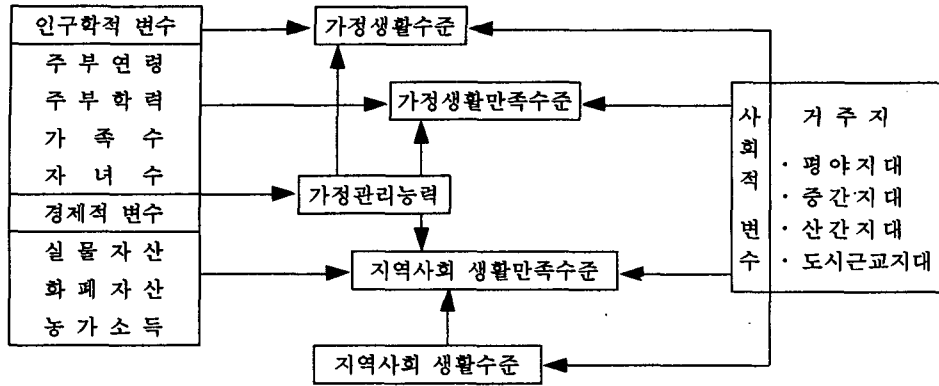


그림1. 연구모형

2. 척도구성

본 연구에서 구성하여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로는 가정생활 차원에서 본 가정생활수준과 만족수준, 그리고 지역사회생활 차원에서 본 생활수준과 이에 따른 만족수준의 4가지가 된다. 이때 가정생활수준(12문항)과 지역사회 생활수준(14문항)은 가장 나쁜 상태를 1점, 가장 좋은 상태를 4점으로 한 Likert 척도를, 가정생활 만족수준(12문항)과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15문항)은 '매우 불만족'을 1점,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한 Likert 척도를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들 각 문항별 응답값의 합을 각 차원별 수준으로 하였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내적일치도에 의하여 크론바하 α 계수(Cronbach Coefficient Alpha)로 검증한 결과 각 척도별로 0.65~0.80 사이의 값을 보였다. 그리고 농가의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구명하기 위하여 생활의 질 또는 결혼/생활만족도 연구들에서 유의하거나 무상관으로 나타난 가구특성들에 대한 설명력 검증을 위하여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부의 연령 및 학력수준 변수를, 가족의 특성으로 가족수 및 자녀수 변수를, 또한 경제적 측면으로는 많은 농가가 재산이 많은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자산이 갖는 비중이 크다고 보여져 이를 반영하여 실물자

산 변수와 환금가능한 화폐자산 변수 및 소득변수를, 사회적 특성으로는 농가의 거주지대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또한 가정관리자인 주부의 관리능력은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 능력변수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는데,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척도에 대한 타당성이 대체로 인정되고 있는 酒井식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 60개 문항으로 이들 점수의 총합을 가정관리 능력변수로 하였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수집 및 분석

전국 농촌지역을 크게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도시근교지대로 나누고, 다단계 층화확률 추출법을 적용하여 9개도 24개 시군에서 48개 마을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한 다음, 다시 이 마을에 거주하는 농촌가구 900호를 무작위 추출하여 기작성된 개별가구용 및 거주마을용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개별가구용은 농가주부에게 응답토록 하였고, 거주마을용 마을에서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의뢰하면서 거주마을용 생활환경 척도에 관한 조사표에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면접조사자는 사회조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본 조사의 취지와 조사방법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활용하였으며, 조사시간은 1992년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완료 후 수집된 조사표는 모두 882부였고, 이중 기제가 부실한 가구분과 비농가분을 제외한 농가응답분 760부를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분포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계산하였으며, 본 연구의 인과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중회귀 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조사가구가 살고 있는 지대별로 분포를 보면 산간지대가 27.9%(21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간지대 27%(205명), 평야지대 26.1%(198명), 도시근교지대 9.1%(145명)의 순이었다.

표1에 제시한 개별가구 응답자와 그들 가구의 일반적 특성 중 먼저 주부의 연령을 보면 50대 가구가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46.7세였다. 주부의 학력수준을 보면 국졸 수준이 60%를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고졸학력이 약 1/4 수준으로 다음이었다. 조사가구의 평균 가족수는 4.8명

으로 '90 전국 농가평균 가족수 3.8명에 비해 많은 상태였으며, 평균 자녀수는 2.5명 정도로 나타났다. 경제적 변수로서의 자산에 대해서 부동산과 동산, 귀금속과 같은 실물자산의 수준은 5,000만원 이상인 가구가 40.4%로 나타났고, 다음이 1,000~3,000만원 미만가구로 25.0%였다. 또한 조사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폐자산, 즉 적금, 정기예금, 계돈 등의 보유수준은 500만원 이상 집단이 21.9%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집단들은 그 분포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농가의 소득수준은 200~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27.6%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0~800만원 미만가구 22.1%의 순이었는데, 조사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은 8,243.8천원으로 '90 전국 농가 평균치인 11,026천원과 비교해 볼 때 74.8%에 불과해서 농가소득 수준은 비교적 낮은 가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136~180점 사이인 가구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가구의 평균점은 170.7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약 57점 정도가 되며, 절대적으로는 중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표1. 조사가구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	구 분		N	%
주 부 연 령	29세	30	4.0	가 정 관 리 능 력	~135점	106	16.1
	30~39세	195	25.9		136~180점	285	43.3
	40~49세	209	27.8		181~210점	195	29.6
	50~59세	226	30.0		211~240점	53	8.0
	60세	93	12.4		241점~	20	3.0
	계	753	100.0		계	659	100.0
Mean(SD)		46.67(10.81)		Mean(SD)		170.71(35.69)	
가 족 수	~3명	109	14.9	자 녀 수	~1명	135	18.9
	4명	155	21.1		2명	208	29.1
	5명	192	26.2		3명	201	28.2
	6명	223	30.4		4명	150	21.0
	7명~	54	7.4		5명~	20	2.8
	계	733	100.0		계	714	100.0
Mean(SD)		4.91(1.38)		Mean(SD)		2.54(1.25)	
실 물 자 산	500만원 미만	54	7.1	주 부 학 력	무 학	95	12.9
	500~1,000만	68	8.9		국교수준	451	61.4
	1,000~3,000만	190	5.0		중교수준	6	0.8
	3,000~5,000만	141	18.6		고교수준	180	24.5
	5,000만 이상	307	40.4		대학이상	3	0.4
계	760	100.0	계	735	100.0		
화 폐 자 산	50만원 이상	156	20.6	농 가 소 득	~200만원 미만	149	19.6
	50~100만원	154	20.3		200~ 500만원	210	27.6
	100~300만원	156	20.6		500~ 800만원	168	22.1
	300~500만원	127	16.7		800~1,500만원	154	20.3
	500만 이상	166	21.8		1,500만원 이상	79	10.4
계	759	100.0	계	760	100.0		

V. 결과 및 고찰

1. 차원별 수준과 생활실태

표2에서 보듯이 가정생활수준은 100점 만점 환산점으로 보면 약 60점 정도로 중상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생활만족수준은 약 51점 정도로 저조하게 나타나 농가에서는 실제 생활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수준에서는 질병예방을 위한 진단 또는 상담정도와 주택의 보유시설 정도, 가사편의기구 보유정도 및 가족여가생활 상태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의료보험 혜택정도와 주택의 밀집도로 파악한 공간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그리고 생활만족수준에서는 저축액정도, 자녀교육비 대비정도 및 가족여가생활 상태에 대해 비교적 불만족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2. 가정생활수준 및 가정생활만족수준의 평균점수

영역	척도	가정생활수준		가정생활만족수준	
		평균	SD	평균	SD
건강생활면	질병예방을 위한 진단, 상담	1.99	0.97	2.66	0.83
	작년 1년간의 가족병상일수	2.77	1.08	2.79	0.94
	의료보험 혜택 가족수	3.80	0.63	3.00	0.87
주거생활면	주택의 밀집도(가족수/방수)	3.90	0.41	3.09	0.86
	주택 보유시설	1.68	0.71	2.59	0.80
가사작업면	부업시설 상태	2.31	0.98	2.65	0.86
	가사편의기구 보유정도	1.77	0.58	2.62	0.70
교육·경제생활면	자녀교육비 대비정도	2.04	1.05	2.49	0.91
	연간지출 생활비 수준	1.94	0.92	2.57	0.64
	저축액	2.27	1.00	2.23	0.78
가족·여가생활면	1일 자유시간 정도	2.58	0.76	2.59	0.76
	가족 여가생활 상태	1.94	0.89	2.42	0.73
전체		29.01	3.89	31.71	4.42

표3에서는 지역사회 생활수준을 정리한 것인데, 2,30대 남녀인구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사회의 노령화 현상을 짐작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의사수와 하수시설면에서 비교적 불량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 생활수준은 100점 만점으로 볼 때 약 72점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도시와의 비교가 아닌 절대수준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농촌의 생활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 따른 농가생활 실태를 표4에서 살펴보면, 마을의 가로등 시설에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고, 마을의 행정편이 시

표3. 지역사회 생활수준 평균점수

영역	척도	평균	SD
자연·물리적환경	도로포장율	2.93	0.97
	상수도 보급율	2.81	1.26
	정기버스 운행회수	2.54	0.72
	인근도시 접근소요시간	2.80	0.95
	하수시설	2.36	0.88
사회·문화적환경	쓰레기 처리방법	2.65	0.89
	의사수	2.29	0.62
	범죄발생 여부	3.67	0.79
	화재발생 여부	3.71	0.87
	마을공동행사 개최	3.01	0.96
	2,30대 남녀인구비	1.98	0.47
	이농율	3.16	0.83
공공편이시설수	2.60	0.69	
농기계 보급율	3.74	0.68	
전체		40.24	2.77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표4.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 평균점수

영역	척도	평균	SD
마을에 대한	마을에 대한 만족	3.19	0.80
	이탈심경유무	3.31	0.89
	심리적 감정	3.86	0.73
주인의식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88	0.64
	쓰레기 처리문제	3.64	0.78
자연·물리적환경	하수처리시설	3.66	0.74
	마을의 환경조건	3.26	0.69
	마을의 위치	2.80	0.95
	마을의 도로사정	2.36	0.88
	마을의 교통조건	2.65	0.89
사회·문화적환경	마을의 행정편이시설	2.29	0.62
	일상용품구매여건	3.67	0.79
	공동행사 협조정도	2.79	0.87
	범죄로부터의 안전	3.01	0.96
	가로등시설	1.98	0.47
	화재로부터의 안전	3.16	0.83
전체		57.40	3.72

결과 도로사정에도 비교적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마을민간의 인화문제에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면에서 비교적 불량하게 나타난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점이 다소 특이하였다. 여기서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은 100점 만점 환산점으로 보면 67.5점으로 가정생활만족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농가의 경우 지역사회적 측면보다는 가정생활 측면이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생활수준보다는 생활만족수준이 더 낮게 나타난 결과에서 농가의 생활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별가정 단위에서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차원별 수준에 대한 인과모형 검증

농가의 차원별 수준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먼저 분석에 사용될 각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가 다음의 표5이다.

표5. 변수간의 상관관계

Correlation	X1	X2	X3	X4	X5
X1 주부연령	1.000				
X2 주부학력	-.410**	1.000			
X3 가족수	-.052	.077*	1.000		
X4 자녀수	.080*	-.067*	.593**	1.000	
X5 실물자산	-.065*	.147**	.126**	.100**	1.000
X6 화폐자산	-.228**	.190**	.154**	.116**	.417**
X7 농가소득	-.121**	.065*	.031	-.050	.144**
X8 가정관리능력	-.231**	.189**	.162**	.107**	.177**
X9 평야지대	-.006	-.014	.131**	.153**	.173**
X10 산간지대	.010	.033	.069*	.056	-.160**
X11 도시근교지대	-.117**	.184**	-.048	-.099**	.150**
X12 가정생활수준	-.241**	.203**	.140**	.052	.416**
X13 가정생활만족	-.049	.040	.047	-.024	.348**
X14 지역생활수준	-.035	.002	.024	.031	.156**
X15 지역생활만족	-.077*	.090*	.047	.077*	-.067*
Correlation	X6	X7	X8	X9	X10
X1 주부연령					
X2 주부학력					
X3 가족수					
X4 자녀수					
X5 실물자산					
X6 화폐자산	1.000				
X7 농가소득	.193**	1.000			
X8 가정관리능력	.269**	.093**	1.000		
X9 평야지대	.015	-.053	-.008	1.000	
X10 산간지대	-.046	-.052	.044	-.361**	1.000
X11 도시근교지대	.154**	.118**	.086*	-.292**	-.306**
X12 가정생활수준	.531**	.181**	.347**	.032	-.114**
X13 가정생활만족	.351**	.103**	.215**	.129**	-.144**
X14 지역생활수준	.131**	.028	.082*	.096**	-.263**
X15 지역생활만족	-.030	.017	.164**	-.149**	.155**
Correlation	X11	X12	X13	X14	X15
X1 주부연령					
X2 주부학력					
X3 가족수					
X4 자녀수					
X5 실물자산					
X6 화폐자산					
X7 농가소득					
X8 가정관리능력					
X9 평야지대					
X10 산간지대					
X11 도시근교지대	1.000				
X12 가정생활수준	.247**	1.000			
X13 가정생활만족	.025	.625**	1.000		
X14 지역생활수준	.018*	.199**	.187**	1.000	
X15 지역생활만족	.129**	-.017	-.181**	-.246**	1.000

** P<0.01 * P<0.05

여기서 보면 각 변수들 간에는 대체로 정적(positive) 또는 부적(negative)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주부연령과 학력변수가 부적으로 ($r=-.410$), 가족수와 자녀수($r=.593$) 및 실물자산과 화폐자산($r=.417$)은 정적으로 다소 높은 계수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생활수준은 실물자산($r=.416$) 및 화폐자산($r=.531$)과 약간 높은 상관관계이고, 가정 생활만족수준과는 비교적 높은 상관($r=.625$)을 나타내었다. 그 외에 다른 변수들간의 상관은

그다지 크지 않아서 변수간의 다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변수를 본 분석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이 각 차원별 수준에 갖는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표 6), 그 결과 표준화된 회귀계수(β)가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한 다음 그림1의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인과모형을 수정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표7).

표6. 관련변수의 차원별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표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정관리능력		가정생활수준		가정생활만족수준		지역사회생활수준		지역생활만족수준	
	B	β	B	β	B	β	B	β	B	β
주 부 연 령	-0.5116	-0.1530**	-0.0366	-0.0766*	0.0521	0.0917**			-0.0234	-0.0434
주 부 학 령	2.4583	0.0696	0.0507	0.0100	-0.2927	-0.0488			0.2248	0.0395
가 족 수	2.1086	0.0801	0.2079	0.0552	0.0000	0.0001			-0.1117	-0.0263
자 녀 수	1.4769	0.0519	-0.1648	-0.0405	-0.4789	-0.0992**			0.5423	0.1183*
실 물 자 산	2.1127	0.0752	0.7886	0.1963**	0.4658	0.0977**			-0.2186	-0.0483
화 폐 자 산	4.0395	0.1626**	1.2362	0.3480**	0.1475	0.0350			-0.2903	-0.0725
농 가 소 득	0.0009	0.0261	0.0002	0.0390	-0.0000	-0.0082			0.0000	0.0124
평 야 지 대	-0.2196	-0.0027	0.2846	0.0244	0.3774	0.0272	-0.3585	-0.0447	-0.6618	-0.0502
산 간 지 대	5.4278	0.0679	-0.2854	-0.0250	-0.1232	-0.0907*	-0.2378	-0.3027**	1.3109	0.1017*
도 시 근 교	3.8912	0.0445	1.6779	0.1313**	-0.2427	-0.1598**	-0.6774	-0.0756	2.1605	0.1499**
가 정 관 리 능 령			0.0258	0.1804**	0.0055	0.0325**			0.0266	0.1651**
가 정 생 활 수 준					0.7375	0.6210**				
지 역 생 활 수 준									-0.3524	0.2183**
R ²	0.1333**		0.3982**		0.4488**		0.0736**		0.1436**	

** P<0.01 * P<0.05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표7. 경로모델의 인과적 분해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가정관리능력	주부연령	-0.1960**		-0.1960
	화폐자산	0.2333**		0.2333
가정생활수준	주부연령	-0.0921**	-0.0364	-0.1285
	실물자산	0.2103**		0.2103
	화폐자산	0.3493**	0.0434	0.3927
	도시근교지대	0.1342**		0.1342
	가정관리능력	0.1859**		0.1859
가정생활만족수준	주부연령	0.1004**	-0.0835	0.0169
	자녀수	-0.0880**		-0.0880
	실물자산	0.1003**	0.1365	0.2368
	화폐자산		0.2549	0.2549
	산간지대	-0.1044**		-0.1044
	도시근교지대	-0.1781**	0.0871	-0.0091
	가정관리능력		0.1207	0.1207
	가정 생활수준	0.6491**		0.6491
지역사회 생활수준	산간지대	-0.2634**		-0.2634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	주부연령		0.0289	0.0289
	자녀수	0.0728*		0.0728
	화폐자산		0.0345	0.0345
	산간지대	0.1342**	0.0611	0.1953
	도시근교지대	0.1635**		0.1635
	가정관리능력	0.1477**		0.1477
	지역사회생활수준	-0.2321**		-0.232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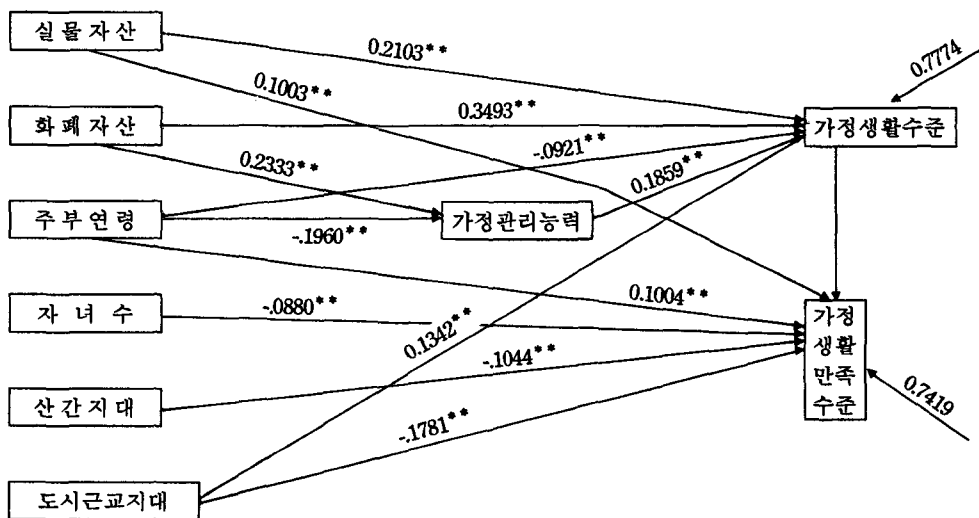


그림2. 가정 생활만족수준과 관련변수의 인과모형 경로분석결과

그리하여 그림2와 그림3에서와 같이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 즉 주부연령, 실물자산과 화폐자산, 자녀수와 거주지 변수를 외생변수로 하고, 가정관리 능력변수를 내생변수로 하여 각 차원별 수준을 설명하는 인과모형을 구성하였다.

표7에서 보면 가정관리 능력변수에 대해서는 화

폐자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인과효과 : $\beta=0.2333$) 나타났고, 주부연령은 부적효과를 보였다($\beta=-0.1960$). 따라서 가정관리 능력은 주부연령이 젊을수록, 화폐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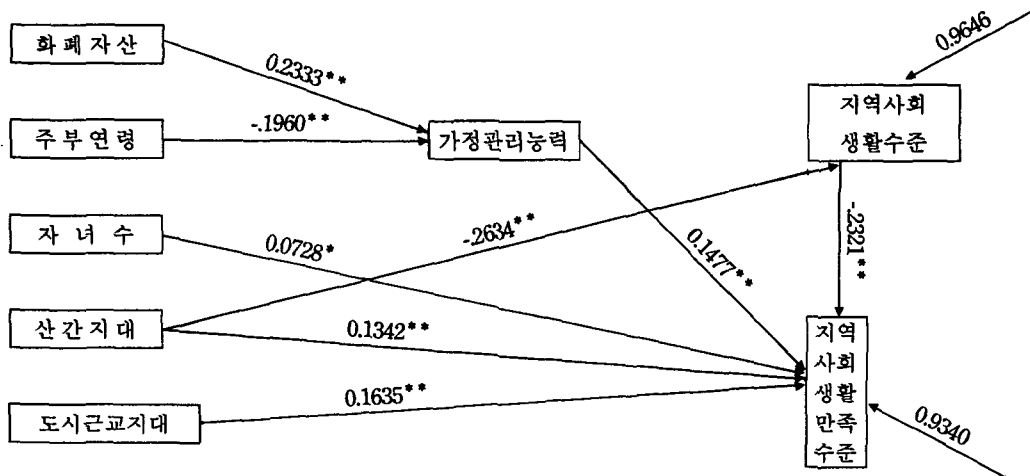


그림3.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과 관련변수의 인과모형 경로분석결과

그리고 각 차원별 수준에서 보면 가정관리 능력 변수는 가정 생활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beta=0.1859$), 가정 생활만족수준에는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beta=0.1207$) 가정관리 능력은 매개변수가 되어 가정 생활수준을 좋게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가정 생활만족수준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가져오고, 향상된 가정 생활수준은 가정 생활만족수준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beta=0.6491$)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 대해서는 가정관리 능력 변수가 지역사회 생활수준과는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정적인 효과를 보이므로($\beta=0.1477$), 가정관리 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생활수준은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beta=-0.2321$) 지역사회 생활수준이 좋은 지역에서는 기대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사회 생활에 대해 오히려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각 차원별 수준에 대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가정 생활수준에

는 화폐자산이 직접적으로 또는 가정관리 능력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인과효과 : $\beta=0.3927$), 실물자산은 직접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beta=.2103$). 주부연령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정관리 능력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다(인과효과 : $\beta=-.1285$). 거주지 변수에서는 도시근교지대에 살수록 가정 생활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나이가 젊은 주부의 가정일수록, 화폐자산이 많을수록, 가정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높은 가정관리 능력수준의 영향으로 간접적으로도 가정 생활수준은 더욱 높아지며,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도시근교지대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가정 생활수준이 더욱 양호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 생활만족수준에는 주부연령과 실물자산, 거주지 변수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중 실물자산의 영향력이 크고($\beta=2368$), 화폐자산은 가정관리 능력과 가정 생활수준을 통한 간접효과가 매우 크다($\beta=2549$). 그러나 자녀수 변수($\beta=-.0880$)와 거주지 변수 중 산간지대 거주

($\beta = -.1044$)와 도시근교 지대거주($\beta = -.0001$)는 부적효과를 보였다. 여기서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실물 및 화폐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거주지가 산간지대가 아니거나 도시근교 지대가 아니면 가정 생활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거주지 변수 중 산간지대 거주여부만이 직접적으로 부적효과($\beta = -.2634$)를 보여서 산간지대가 아닐수록 지역사회 생활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산간지대는 대체로 마을의 생활환경이 불편할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평야지대나 도시근교 지대에 거주하는 농가보다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는 거주지 변수가 직접 또는 지역사회 생활수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나서 지역사회 생활수준의 경우와는 반대양상을 보였으며, 주부연령과 화폐자산변수는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화폐자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거주지가 산간지대이거나 도시근교지대일수록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이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산간지대의 생활환경 수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데 반해, 이에 따른 농가의 만족수준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점인데, 실제로 산간지대로 거주하는 농가에서는 자신의 생활환경을 그다지 열악한 수준으로 인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각 차원별 수준과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변수와 가정관리 능력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그 인과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수준은 가정생활수준을 좋게 함으로써 만족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직접적으로 만족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가정생활 차원에서는 생활수준이 만족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만 지역사회생활 차원에서는 생활수준이 오히려 만족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의 장(場)별로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의 상호관계가 별개의 양

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로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 중 가정 생활만족 수준에는 부적효과를 보인 자녀수 변수와 산간지대 거주여부가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난 점에서도 농가의 경우 가정생활 차원과 지역사회생활 차원을 개선함으로써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할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점차 소외집단화 되고 있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의 질' 수준에 대한 양상을 밝혀 실질적인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그리하여 농가의 생활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한정하여, 각 장에서 생활수준과 생활만족수준을 '생활의 질'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하여 농가의 생활을 진단해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밝힌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가의 가정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은 지역사회 생활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가정생활 차원은 51~60점 정도, 지역사회생활 차원은 67~72점 정도였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라는 생활의 장 모두에서 생활수준에 비해 생활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있어 농가에서의 생활은 실제조건 보다는 심리적인 불만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농가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수준은 주부연령이 젊을수록, 화폐자산이 많을수록 높는데, 이 변수는 가정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지만, 생활만족수준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정관리 능력변수는 매개변수가 되어 가정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이 수준은 다시 가정 생활만족수준을 높게 되고, 또한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배양은 농가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3. 농가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실물 및 화폐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산간지대나 도시근교 지대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의 가정생활만족수준이 높고,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화폐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거주지가 도시근교이거나 산간지대이면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수와 거주지 변수는 가정생활과 지역사회생활에서 만족수준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므로 농가의 경우 가정생활 차원과 지역사회생활 차원을 개선함으로써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할 때 이러한 요인들을 잘 조화시키려는 생활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겠다. 농가의 경우, 가정생활과 지역사회생활은 거의 상반되는 배려를 필요로 하는 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서 가정 생활만족수준과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를 동질집단으로 간주하고 획일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각 복지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배려가 선행되어야만 농가주민의 진정한 욕구충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생활의 질의 하위개념으로서의 생활수준/생활만족수준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농가생활의 질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농가의 생활의 질에 따른 복지대상의 세분화에 관한 정보를 구하려는 연구가 후속연구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게 된다.

참 고 문 헌

고순철, 1992, "제주도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경동, 이흥구, 신도철, 1976, "한국인의 가치의식과 삶의 질", 이만갑교수 회갑기념논총, 한국

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김숙이, 1988, "도시주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김신복, 1980, "복지사회와 교육제도에 대한 토론", 복지사회와 교육, 한국교육학회편:배영사.
 김정옥, 1989,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 연구 17. 효성여대.
 김화자, 윤종희, 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노자경, 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수준 및 관련변수 연구-경기도 용인,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농림수산부, 1991, 농림수산 주요통계.
 송병국, 1987, "한국성인의 생활만족도와 그 관련변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기영, 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임정빈, 정혜정, 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임정빈, 문숙재, 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임정빈, 1990, "농촌 가정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4).
 정은숙, 1985, "도시가정의 생활의 질 측정에 관한 일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조희금, 1986, "농촌주부가 인지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연구 1편, 대구대 가정생활연구소.
 최경구, 1978, "한국 농촌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관한 일 연구", 고대 석사학위논문.
 최은숙, 1981, 농가의 질적생활 진단을 위한 지표의 책정조사연구, 농촌진흥청.
 최은숙, 김인숙, 1990, "농촌가정생활의 질 진단을 위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최은숙 외, 1992, 한국 농촌의 생활의 질 지표개발 및 진단-지역개발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서울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 통계청, 1991, 한국의 사회지표.
- 한경혜, 1980, “농가의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한경혜, 장미나, 1993,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부담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1).
- 홍숙자, 1990, “LA거주 한국이민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과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 홍동식, 1983, “농촌부락에 있어서 복지수준의 사회구조적 관련요인”, 사회구조연구 2(1),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 홍두승, 1987, 사회조사 분석, 서울 : 다산출판사.
- 酒井ノフ子, 1990, “主婦の 家庭管理 能力の 開發 事例—第一報”, 日本家政學會誌 41(1).
- Ackerman, N. & Paolucci, B., 1983, “Objective and Subjective Income Adequacy :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Life Quality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Plenum Press : New York.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 Gerson, E. M., 1976, On “QO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 Molnar, J. J., 1985,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Farm Operators :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d the farm”, Rural Sociology 50(2).
- Rice, A. N. & Tucker S. M., 1986, Family Life Management(Sixth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